



특집 : 4~11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제2차 광주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성과 '역대 최대'





## 섞고 비비는 한국식 요리 미학 비빔밥



골동반(骨董飯) 혹은 화반(花盤)으로 불린 비빔밥은 섞고 비비는 한국식 요리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다.

우리 음식 가운데 향공기 기내식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마도 비빔밥일 것이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인기가 좋다. 마이클 잭슨이 비빔밥을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빔밥을 보면 한국인들은 섞는 것을 유달리 좋아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음식처럼 찌개나 탕, 전골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끓이는 조리법이 발달한 곳도 없다. 이 가운데 대표가 비빔밥이다.

골동반은 '어지럽게 섞는다'는 의미다. 비빔밥이 처음으로 등장한 문헌은 1800년대 말엽에 간행된 시의전서(是議全書)라는 조리서다. 비빔밥에는 대체로 비슷한 재료가 들어간다. 콩나물이나 도라지, 고사리 같은 나물과 양념해 잘 볶은 소고기, 아들아들한 청포묵이 어우러지고 거기에 달걀을 얹는다. 온갖 꽃이 불타오르듯 하다해서 '화반'이라고도 한다.

2	<b>한국의 얼</b>	섞고 비비는 한국식 요리 미학 비빔밥
3	<b>목차</b>	
4	<b>특집</b>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제12차 광주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성과 '역대 최대'
12	<b>기획</b>	동포 저명인사들 국내강연 '뜨거운 환호' 재외동포재단, 멜리사 리·론 김·김동석씨 초청... 대학·고교서 경험 전수
14	<b>화제</b>	"글쓰기로 고달픈 이민의 삶 위로 받았다" 동포문학상 대상 박원교(시)·이귀순(소설)·박성기(수필)
16	<b>현장의 목소리</b>	타국에 시집간 동포여성들 "친정 한국의 품 따뜻해요" 제9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성료... 16개국 70여 명 참가
18	<b>동포의 창</b>	뉴욕의 코리아타운은 잠들지 않는다 프랑스 언론도 감탄한 뉴욕 한인사회
20	<b>OKF 뉴스</b>	재외동포재단, 관광공사와 '모국방문 편의 증진' MOU 체결 외
21	<b>글로벌코리아인</b>	"한인사회 고령화 추세 맞춰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요" 우종필 홍콩 한인체육회장, 인천체전 선수단 인솔
22	<b>한민족공감</b>	차대통령 동남아서 성공적 세일즈 외교 펼쳐
23	<b>지구촌 통신원</b>	'눈물의 고려인 역사' 고려일보 창간 90주년 기념식 김현태 연합뉴스 알마티 특파원
24	<b>나의 살던 고향</b>	고산 지대에 평온한 가을이 내려앉다 _ 강원 '태백'
26	<b>재단공지 및 독자후기</b>	



**표지**

국내의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마당으로 불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상(韓商) 네트워크'의 힘을 과시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행인:**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 3천여 명의 기업인이 참여했다. 29일 개회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제12차 광주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성과 '역대 최대'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마당으로 불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상(韓商) 네트워크'의 힘을 과시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지방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월 29일 기업전시회 오픈팅 후 강운태 광주시 시장과 홍명기 대회장,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등이 기업전시 부스를 돌며 우수 기업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상). 10월 28일 개막 기자회견에서 홍명기 대회장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상(韓商)의 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은미 인도네시아 CEO SUIT 대표, 홍명기 대회장, 고해정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회장, 홍진태 광주시 투자고용국장(하).

**올** 해로 열두 돌을 맞이한 '세계한상대회'는 명실 공히 재외 한인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장이자 네트워킹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비즈니스 이익과 최신 세계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를 찾아 각국에서 모여든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듯, 대회는 단순히 우의를 확인하는 장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한상대회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란 슬로건 아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열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場)이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44개국 1천200여 명의 한상과 전남·

광주 지역을 비롯한 국내 2천여 명의 기업이 참가했다.

### 거상(巨商)부터 오지(奧地) 한상 광주 집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대회에는 거상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각국의 한상들이 참석했다"며 "세계각지의 신·구 거상들의 든든한 네트워크 구축은 모국의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대회의 대회장은 미국 듀라코트프로덕트그룹 홍명기 회장이 맡았다.

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김우재 회장, 중국한국상회 장원기 회장, 동남아한상연합회 송창근 부회장, 중남미한상연합회 최태훈 회장, 재미한인여성경제인총연합회 그레이스 한 회장,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허성칠 회장, 카자흐스탄고려인연합회 김로만 회장, 미국 코리아 IT네트워크 장석원 회장 등이 공동

대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회장, 최종태 아마젠그룹 회장, 라오스의 오세영 코라오 그룹 회장, 오스트리아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말레이시아의 권병하 헤니권코퍼레이션 회장, 미국의 고석화 월서은행 회장, 임창빈 창텍스트레이딩 회장, 문대동 삼문그룹 회장, 조병태 소네트 회장,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등의 거상(巨商)이 자리를 빛냈다.

한편, 1세대 한상의 뒤를 이어 한상대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한상들이 대거 참여해 보다 젊어진 한상대회가 꾸러졌다.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고해정 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김은미 CEO SUITE 대표, 스웨덴 파나고라의 송문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임수혁 마이크로소프트 COO/CFO와 문성찬 삼문그룹 부회장은 각각 임창빈 회장과 문대동 회장의 아들로 참석해 대를 잇는 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참석하는 한상들도 눈에 띄었다.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카타르의 이말재 한국관 대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후추 등 향신료 사업을 하며 미지를 개척하고 있는 최경열 (주)공간 대표,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발전플랜트 계약을 따내며 연매출 3천만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상민 (주)ESD 사장 등이 한상의 깃발아래 활발한 네트워킹을 펼쳤다.

**모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 모색**

10월 29일 열린 개회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홍명기 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 주요 인사와 동포 경제인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한상기(韓商旗)의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 선언, 대회사, 주제 공연, 대회 소개 영상 상영, 국무총리 축사, 환영사, 최문기 장관의 기조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형 이사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명기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12년째 접어든 한상대회가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총합’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행사 기간에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상들이 모국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모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서자”고 외쳤다.

정홍원 총리는 축사에서 “한상대회는 지난 12년간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자리 매김했다”며 “모국의 경제 및 안보적 상황이 불안정한 이때 우리 한상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거주국에서 더 큰 성과를 얻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10월 29일 오전에 열린 ‘제23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조규형 이사장을 포함해, 홍명기 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2차 한상대회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및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개회식에 앞서 이날 오전 전시장 홀 입구에서는 기업전시회 오픈 행사가 열렸고, 영비즈니스 리더 120명은 오전 광주지역 기업지원기관과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테크노파크, 기아자동차 등 동 지역 주력산업인 광(光)산업과 금형산업의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 진행된 ‘리딩CEO포럼’에서는 이민화 KAIST 교수의 ‘창조경제와 한상네트워크’에 대한 주제강연 및 토론과 함께 리딩CEO와 광주시 중견기업인 간의 한상CEO 멘토링이 이어졌다.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는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이 ‘창조경제, 글로벌 기업의 성공사례-휠라코리아에서 배운다. Think different!’라는 주제로 성공스토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참가자들은 미래의 한상을 이끌어갈 영비즈니스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한편, 대회를 전후해서 분위기를 돋우는 학술행사 등도 열렸다. 전남대는 한상대회 개막 하루 전인 10월 28일 사회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세계 한인 귀환 디아스포라 현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국제정치학회,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연 이번 포럼에서는 ‘이스라엘과 일본의 귀환 동포에 대한 정책’, ‘광주 광산구, 서울, 경기도의 고려인과 조선족 동포들의 귀환 현상과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회 이틀째인 30일 사회대 특별강의실에서는 건축설계회사인 미국 PDI그룹 허승희 회장 초청 특강도 열렸다.

10초 만에 사람의 얼굴 특징을 살려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자 행위술가인 배희권 씨는 대회에 참가하는 리딩 CEO, 상임운영위원 등 한상 100명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도 받는 ‘글로벌 한상 100인 얼굴 그리기’ 행사를 펼쳐 예술의 도시 광주를 부각시켰다.





- 1 10월 30일 열린 업종별 비즈니스세미나는 식품외식, 섬유패션, 첨단IT, 비즈니스서비스 등 분야별로 열렸다. 섬유·패션 분야에서 이상봉 디자이너가 K-Fashion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2 10월 30일 오후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킹 시간에 패션쇼 모델로 무대에 오른 영비즈니스리더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패션을 알리는 패션쇼에 모델로 서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의 패션산업은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 3 10월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상공회의소와 재뉴질랜드상공인연합회는 시장개척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4 비즈니스서비스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에 나선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가 ‘신시장, 사업 발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5 기업전시회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홍명기 대회를 비롯한 리딩CEO들이 광주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광(光)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6 29일 오후에 열린 ‘리딩CEO포럼’에서는 이민화 KAIST 교수의 ‘창조경제와 한상네트워크’에 대한 주제강연 및 토론과 함께 리딩CEO와 광주시 중견기업인 간의 한상CEO 멘토링이 이어졌다. 리딩CEO 단체 기념촬영.





광주시와 지역 중소기업은 사전 신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은 1천331건에 5천3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비즈니스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사업 실패담과 성공담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10월 30일 오후에 컨벤션 다목적홀에서 패션쇼가 열렸다. 패션쇼에는 영비즈니스리더들이 모델로 참가해 워킹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 국내외 경제인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본격 가동

세계한상대회 이틀째를 맞아 한층 고조된 분위기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0월 30일 오전 식품·외식, 섬유·패션, 첨단·IT, 비즈니스 서비스 등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및

멘토링 세션'에는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하며 성과 창출에 나섰다.

다수의 재외동포들이 종사하고 있는 식품·외식 분과는 '시장의 니즈를 디자인하라. 글로벌 시장 &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한 성공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오후에 열린 기업IR과 멘토링에서는 농수산물 수출 동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설명 및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에서 박찬일 인스턴트펍크 오너셰프는 "메뉴에는 경계가 없어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한 메뉴 개발이 가능하다"며 "요리법의 변화, 다양한 마케팅 방안 마련을 통한 신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업 IR에서 백진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은 "최근 해외 신흥시장으로의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수출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총괄 자금을 늘리고, 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일관된 수출지원 시스템을 통해 한국농림수산물 수출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섬유·패션 분과는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과 전망'과 'K-Fashion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이상봉 패션디자이너가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으며, 지역별 패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됐다.

최근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아웃도어 패션시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웃도어 패션기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유순 패션인트렌드 이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 이사는 "최근 블랙야크, 코오롱 스포츠 등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토종 아웃도어 기업의 글로벌라이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 이상봉 디자이너는 "한글 패션, 한국 사머니즘의 현대화, 전통의 차용과 재해석을 통해 패션 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영역을 파괴한 디자인과 실생활의 만남, 문화와 예술의 접목을 통해 K-Fashion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첨단·IT 분과에서는 '첨단 ICT 기술로 한상 기업의 창조경영을 실현하라! - 창조적 비즈니스 혁신, 스마트워크가 답이다'를 주제로 스마트환경에서의 비즈니스 전략 및 플랫폼에 대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스마트 플랫폼'과 '스마트 비즈니스 시스템' 사례를 발표하고,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설된 비즈니스 서비스 분과 세미나에



# 광주시, 3억9천만 달러 투자·수출협약 ‘즐거운 비명’

세계한상대회에서 광주시는 대회에 참가한 한상들로부터 기대이상의 투자·수출협약을 올리는 성과를 일궈냈다.

광주시는 10월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오스트리아 영산그룹(회장 박종범) 등 11개국 24개사와 총 3억9천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0년 제9차 대구·경북 대회에서 3천만 달러 규모, 2011년 제10차 부산대회와 2012년 제11차 서울대회에서는 투자 및 수출협약을 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의 이번 투자·수출협약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한상대회 주요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 1:1 비즈니스미팅, 유통바이어 초청상담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등을 통해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담 실적도 올렸다.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 간 향후 샘플 구매와 조정 등을 거쳐서 실질적인 수출의 판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해외바이어 초청 단체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광주지역 기업의 수출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한상대회와 연계한 광주지역 기업의 수출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운태 시장은 체결식에서 “투자와 수입을 결정해 준 해외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성공적인 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0월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오스트리아 영산그룹(회장 박종범) 등 11개국 24개사와 총 3억9천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강 시장은 이어 “MIG(Made In Gwangju)브랜드의 미국, 러시아 수출은 도시 인증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세계 한상기업인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1천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지역기업에 5천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박종범 영산 회장은 투자회사들을 대표해 “세계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투자기업에게는 “광주시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한국경제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는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전략, 최신 마케팅 기법으로 성공하는 기업 만들기’를 주제로 성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신시장 발굴 방안을 제시했다.

이금룡 (주)코글로닷컴 대표는 “현재는 창의적 발상으로 인간의 감성과 미, 그리고 건강을 바탕으로 둔 산업이 제4의 물결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양성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융합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혁 SNSBakers 대표이사는 “최근 삼성, 나이키, 스타벅스, 유니클로, 코카콜라 등 세계적 기업들이 SNS를 통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

롱테일 마케팅을 활용하고 미디어 채널별 연계성과 컨셉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기업전시회’, 그리고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영비즈니스리더 150여 명 참가 활발한 활동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숙박·전시 여건이 불리한 호남권에서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9일 오전에 리더 120명은 오전 광주지역 기업지원기관과 기아자동차 등 동 지역 주력산업인 광(光)산업과 금형산업의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한상대회 기간에는 한인 이주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 사진전'이 열렸다.

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한상들과 광주시가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대회에 집중시킨 결과다.

2002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한상대회에는 28개국, 968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47개국에서 1천200여 명의 한상과 2천 명 이상의 국내 기업인이 참가했다. 국내 기업 430곳도 기업전시회에 참석해 한상들과 네트워킹을 쌓았다.

기업전시회에서 이뤄진 상담 실적은 3천844건에 4천775만 달러로 집계됐고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은 1천331건에 5천3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265건의 매칭이 이뤄졌다. 특히, 처음으로 16개 업체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성사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대회기간 내내 미팅장은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의 참여 열기로 가득했다.

기업전시회에서는 430개 기업 및 기관에서 참여해, 전년 대비 약 70개가 늘어난 460개의 부스가 설치됐다. 특히 광주만의 특

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광(光)산업, 자동차, 백색가전, 그린에너지, 문화사업 등의 테마관을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를 비롯한 한상 단체 간의 우호협력 4건,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한상 기업인 간 우호협력 16건이 이뤄졌다.

이로써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젊은 한상들의 활발한 활동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45세 미만의 한상 영리더 모임인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는 2007년만 해도 참가자가 30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150여 명으로 늘었다. 사업 분야도 IT, 물류, 발전,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해졌다. YBLN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영비즈니스리더로 스페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주)단군 이진우 대표는 “광주시가 일대일 비즈니스미팅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잘 해줘 모든 상담이 내실이 있었다”며 “특히 이번 한상대회 중 광주테크노파크와의 만남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영리더들은 이번에 처음 선보인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세미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네트워킹을 넘어, 서로 간의 비즈니스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대회 분위기를 주도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에는 ‘제24차 리딩CEO 내부회의’와 ‘영비즈니스리더 내부회의’, ‘한상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됐다.

리딩CEO 내부회의를 통해 미국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65)이 신규 리딩CEO가 됐다. 하 회장은 미국 유통업체인 한남체인을 이끌며 연간 약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후에는 ‘리딩한상 비즈니스 미팅 & 기업전시회 투어’가 진행돼 해외 한상들의 비즈니스 미팅 참여도를 높였다.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 폐회식에서는 차기 대회 개최지인 부산시에게 한상기를 전달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경제인 여러분 덕분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상 네트워크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성장이라는 신념 아래 대회 기간 내 구축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참]**



▶ 한상 “경제 위기 탈출 위해 아시아 주목” 조언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한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상들은 유망시장으로 아시아와 남미를 꼽았다. 시장이 포화 상태인 북미보다는 유럽이 더 매력 있는 시장이며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아시아와 남미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한상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더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인 이주사 한눈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진전

재외동포들의 이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대회기간 내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단장 임채완)이 주최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시회’에는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미국 등지에서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녹아 있는 200여 점의 사진과 함께 20여 점의 유물, 영상자료가 선보였다.

임채완 단장은 “19세기 중엽 시작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 역사는 오늘날 전 세계 175개국 701만 명이 거주하는 한민족 영토를 확장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며 “이들은 도전 정신과 성실성을 발판 삼아 가는 곳마다 성공으로 이끌었고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시장에는 대회를 찾은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조직 강화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비즈니스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사업 실패담과 성공담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007년에 결성되어 젊은 한상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총무 등의 조직을 개편해 회장과 부회장 밑에 1본부 4 위원회 체제로 탈바꿈했다. 지원본부와 비즈니스위원회, 소통위원회, 차세대위원회, 행사위원회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해정 영비즈니스리더 대표는 “개편된 조직을 토대로 활성화에 앞장서 내년에는 200명의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올리며 세계각지의 신·구거상들의 돈독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의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선보이다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야외에 김치 특별관이 설치돼 다양한 종류의 김치에 대한 소개와 즉석 김치전 및 김치 비빔밥을 만들어 행사장을 찾은 기업인들에게 무료 시식의 기회를 제공했다. 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는 상설무대가 마련돼 남도 민요와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졌고, 재즈공연도 열렸다.

재외동포들은 개회식 이후 열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와 레이저 퍼포먼스, 가수 한영애 공연 등 문화행사에 이구동성으로 “포근한 남도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회 이틀째인 3일 오후에는 컨벤션 1층 다목적홀에서 스탠딩 파티 형식의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열렸다. 영비즈니스리더 등 한상들이 모델들과 함께 직접 패션쇼 런웨이에 섰고 추억의 디스코 타임에서는 댄스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 경제 유발 효과 커

광주발전연구원은 이번 한상대회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100억 원, 소득 유발 효과는 4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 간 상품계약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천453억 원, 소득 유발 효과는 692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광주에서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강운태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등 관계자들이 한상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창**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민당 국회의원, 론 김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 김동석 미국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으로 10월 1일부터 11까지 차례로 방한해 국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 대상 순회강연회를 열었다.

# 동포 저명인사들 국내강연 ‘뜨거운 환호’

재외동포재단, 멜리사 리·론 김·김동석 씨 초청... 대학·고교서 경험 전수

**멜**리사 리(47세, 한국명 이지연) 뉴질랜드 국민당 국회의원, 론 김(34세, 한국명 김태석)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 김동석(55세) 미국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의 초청으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차례로 방한해 국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 대상 순회강연회를 열었다.

리 의원은 지난 2011년 뉴질랜드 국회의원으로 재선된 후 소수 민족부 정무차관으로 발탁돼 활동 중이며, 김 의원은 미국 뉴욕주 최초의 선출직 한인 정치인으로 세금 및 주택 등 여러 분야의 의정활동은 물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김 상임이사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인 시민정치운동가로 풀뿌리 정치참여 운동을 통해 한인들의 권익신장 및 한·미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국내 차세대 ‘롤모델’로 나서다

리 의원은 ‘세계화 시대의 보이지 않는 벽 극복하기(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in a globalised village)’란 주제로 1일에 미추홀외국어고, 용인외국어고에서, 2일에는 인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이어 재단이 주최하는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식에 참석했다. 리 의원은 지난 2001년에는 동 대회 참가자로, 2009년에는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바 있다.



멜리사 리 의원

멜리사 리 의원은 10월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큰 꿈을 꾸라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리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인 저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뉴질랜드 최초의 소수민족 출신 여성장관, 여성 총리가 되고자 계속 도전할 계획”이라며 “여러분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세계화 시대의 보이지 않는 벽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그는 “세상 어느 곳에 살아도 유리천장(glass ceiling,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는데, 그 벽이란 것을 때론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며 “이 벽을 넘어서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의원은 1~2학년 학생 400명에게 “인생에서 여러 난관을 만날 때 환경 탓, 제도 탓, 남 탓으로 돌려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10살 때 영어 한마디 못하며 말레이시아로 이민와 처음에는 골짜기였으나 어휘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부단한 노력 끝에 나중에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꿈을 크게 꾸십시오. 스스로 ‘비전 보드(Vision Board)와 드림 보드(Dream Board)’를 만들어 10년 뒤, 20년 뒤의 자신을 그려 보세요. 제가 유치원 시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을 때 모두 불가능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재외동포 가운데 최초의 거주국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 ‘타인과의 교류’ 강조

론 김 의원은 ‘청소년의 꿈과 미래, 글로벌 리더십’이란 주제로 7일에 이화여대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학생 50명에게 ‘투지와 끈기’에 대해서, 8일에는 오전에 청주의 국어고 1~2학년 300명에게, 오후에 민족사관고 1학년 150명 학생에게 ‘두려움을 즐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차례로 강연을 펼쳤다.



론 김 의원

론 김 의원은 “미 명문대학에서 직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아내가 ‘한국 유학생들의 지원서는 4.5 이상의 높은 학점으로 훌륭하지만 정작 만나보면 말도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미리 내 이력까지 조사해 교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오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면서 “이는 한국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충분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를 사로잡는 열정이 무엇인지 젊은 나이에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글로벌 시대에 시장에서 원하는, 끈기있게 포기하지 않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그는 ‘타인과의 교류’를 꼽았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사람 자체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멀리보고 큰 꿈을 키워라(부제 : 강원도 산



멜리사 리 의원은 인천 미추홀외고에서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의 보이지 않는 벽 극복하기’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골 소년이 워싱턴 정가를 흔드는 인물이 되기까지’란 주제로 10일에 춘천고에서, 11일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인천외국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강원도 춘천출생인 김 이사는 1977년 춘천고 졸업생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다시 한 번 모교를 방문했다.



김동석 상임이사

조규형 이사장은 “역경을 딛고 거주국 내 주류 정치사회에 진출한 재외동포들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국내 차세대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차세대들이 이번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배울 뿐 아니라,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저명인사 초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했던 학교 관계자들은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상당수는 강연자에 대해 연구를 해와 수준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활약하는 명사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만족해했다.

강연을 들은 미추홀외고 박지연(18·여) 영어자유전공과 2학년 학생은 “입시 경쟁 스트레스로 고민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니 큰 격려가 됐다”면서 “진로에 대해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게 됐다”고 기뻐했다.

프랑스어과 1학년 윤정빈(17·여) 학생은 “힘든 고비마다 나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 변명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나를 믿고 당당히 살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강연의 감동을 전했다.

오혜성 미추홀외고 교장은 “강연을 듣겠다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아예 수업시간을 조정해 1~2학년 전학생이 참여했다”면서 “앞으로 한인 저명인사를 더 많이 초청해야겠다”고 밝혔다. **[장]**

# “글쓰기로 고달픈 이민의 삶 위로 받았다”

동포문학상 대상 박원규(시) · 이귀순(소설) · 박성기(수필)



재외동포재단은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시와 소설, 수필부문 대상 수상자를 고국으로 초청해 문학 탐방과 고국 문화체험의 시간을 제공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박성기, 이귀순, 박원규.

**재**외동포재단은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시와 소설, 수필의 성인부문 대상 수상자를 고국으로 초청해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 코리아페스티벌 무대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성인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시 부문에 박원규(과테말라) 씨의 ‘아버님 전상서’, 단편소설 부문에 이귀순(호주) 씨의 ‘오시리스의 저울’, 수필 부문에 박성기(뉴질랜드) 씨의 ‘공씨책방을 추억함’이 각각 선정됐다. 3명은 초청기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 만의 고국의 환대에 즐거워했다.

박원규 시 부문 수상자는 “과테말라는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두 번째 고국 방문”이라며 “수상식을 열어주고 문학 탐방과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주어 문학에 대한 성찰과 따뜻한 고국의 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리아페스티벌 수상식에 이은 공연 감상과 문학관 기행, 고궁 역사문화 탐방 등의 시간을 보낸 3명의 수상자는 동포 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부문 대상을 받은 이귀순 씨는 “현지에서 수상했으면 주변

의 지인들과 축하하고 끝났을 것을 고국으로 불러 축하행사를 열어주고 수상자들과 함께한 문학 기행은 무척 뜻깊었다”며 “코리아페스티벌에서 올려 퍼진 다양한 아리랑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7일 서울 장충동의 한국현대문학관과 경복궁 탐방을 마친 수상자들로부터 수상소감과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언제부터 글쓰기를 시작했고 계기는 무엇인가?**

**박원규 :** 이민 생활 초기에는 먹고 살기 바빴다. 계속 일기를 써오다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6년 전이다. 현지 한인신문에 시를 연재할 기회가 생겨서 ‘가연일지’라는 고정란에 6년간 매주 시를 기고했다.

**박성기 :** 뉴질랜드타임스와 그리스천라이프에서 기사를 거쳐서 편집장을 지내면서 항상 글을 써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오클랜드 문학회를 결성하게 되면서 다른 회원들이 주로 시와 소설을 쓰기에 기사를 오래 써온 내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인 르포와 수필에 도전했는데 뜻밖에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귀순 :** 1993년에 문예사조를 통해서 수필과 소설부문에 등단해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1997년 호주인 남편을 만나 이민을 오면서 한동안 잊고 살았다. 지난해부터 시드니의 ‘동그라미 문학회’에 발을 디디면서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다. 한인 언론매체에 여러 번 수필을 기고하다가 이번에 소설에 도전했다.

**Q. 동포문학은 생소한 장르다. 글쓰기 소재는 어디서 구하는가?**

**박원규 :** 과테말라는 이민자 눈에 늘 생소한 것 투성이다. 침술원을 운영하면서 매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초청자들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현대문학관을 방문해 다양한 문학 사료를 살펴보고 한국 근현대 문학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역사문화 탐방에 나선 수상자들이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했다.

생활에서 글쓰기 소재를 얻는다. 아버님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지금까지 쓴 300편 중의 50편이 아버님에 대한 글이다.

**박성기 :** 사라지고 잊혀 가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에서도 오래된 것과 전통적인 것에서 소재를 얻고 있다.

**이귀순 :** 호주는 인종차별과 백호주의가 강하다. 관공서에 일보러 갈 때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취업전선에서 차별이 있다. 소외와 차별의 울분이 글의 소재가 되고 있다.

**Q.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박원규 :** 한인신문의 '가연일지' 코너에 시를 게재하면서 독자로 부터 종종 감사편지를 받을 때 기뻐다. 시를 통해서 내 추억과 어질러져 있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박성기 :** 르포나 여행기 등 다양한 글을 쓰는데 독자로 부터 글을 읽고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

**이귀순 :** 국제결혼 여성으로 백인사회에 어울려 살다 보니 우울증이 생겼다. 글로 내면을 풀어내면서 치유하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게 글을 쓰고 있다.

**Q. 동포사회에서 문학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제일 어려운 점은?**

**박원규 :**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똑바로 말하고 있는지 검증받을 곳이 없어서 안타깝고 불안하다. 문학은 내면을 정갈하게 우려내는 것인데 시와 다른 삶을 살 때 가족이나 주변의 지적이 제일 뜨끔하다.

**박성기 :** 이민사회는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글쓰기를 직업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하기에 기왕이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택했다. 다들 먹고 살기 쉽지 않아 문학 등을 누릴 여유가 없다. 동포 문학을 전업으로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귀순 :**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어야 독자가 감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학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모두에게 공감되는 말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Q. 대상을 받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박원규 :** 다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과테말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문학 동호회를 만들고 싶다. 그동안은 일기식으로 삶을 기록해왔는데 이제는 습관을 다듬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다.

**박성기 :** 뉴질랜드의 숨겨진 곳, 잊힌 곳을 우리말로 제대로 소개하는 문화홍보대사를 해보고 싶다. 여기 한인뿐 아니라 고국에도 뉴질랜드를 알리고 또 뉴질랜드에 한국을 알리는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귀순 :** 결혼 후 오랫동안 펜을 놓고 살면서 절망해왔는데 이번 문학상 수상으로 앞으로 글쓰기에 큰 힘을 얻었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다.

3명의 수상자는 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현지에서는 한국 책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대형서점에 들러 잔뜩 책을 살 것이라며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포문학상을 심사했던 문학의 대가들과 교류 시간이 없어 아쉬웠으며 동포문학상의 권위가 높아져 작가 등용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창]**



국제결혼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이 친정을 찾아 소통하는 장인 제9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의 The-K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 타국에 시집간 동포여성들 “친정 한국의 품 따듯해요”

## 제9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성료... 16개국 70여 명 참가

### “거주국과 모국, 다문화 사회 징검다리” 자처

국제결혼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이 친정을 찾아 소통하는 장인 제9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가 서울 양재동의 The-K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세계 16개국 34개 지회에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둔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회장 은영재)가 지난 2005년부터 연례행사로 열어온 이 대회는 거주국과 모국은 물론 다문화 가정과 회원 상호 간에 소통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다.

‘21세기 희망 한국, 참여하는 세계 국제여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올해 행사에는 각국 지회장과 임원,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7일에 열린 전야제는 다문화가정 단체 ‘톡 투 미’(Talk to me)

의 패션쇼와 탤런트 쇼, 꿈나무 오케스트라와 KBS 국악관현악단 등의 공연, 피아니스트 김수연과 색소포니스트 이학춘 교수의 연주, 가수 김연택 씨의 무대 등이 펼쳐졌다.

전야제에는 원유철·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은영재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홀로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왔으며, 굳건한 연대를 통해 서로 돕고 또 고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데 징검다리를 자처해왔다”고 자부했다.

이어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더욱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로 세계 각지에서 정체성을 간직하며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온 우리는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들은 이날 거문고홀에서 열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에서 조 이사장은 “국제결혼 여성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치하한 뒤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미래를 향한 국제결혼 여성의 리더십 ▲한국 바로 알리기와 문화 홍보를 위한 역할 ▲함께하는 다문화, 교류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또 대회 기간에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교인 ACA와 결혼 이주자단체인 ‘톡 투 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World-KIMWA는 매년 세계대회를 열면서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CA다문화학교와 다문화 가정 여성단체인 ‘톡 투 미’(Talk to me)를 후원하고 있다.

은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거주국에서 1일 찾집과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 1만6천 달러(약 1천717만6천 원)를 올해에도 학교와 단체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면서 “방학 동안에 국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미국에 초청해 선진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 “한국 바로 알리기 나서겠다”

이계숙 World-KIMWA 이사장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 국민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한 여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편견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회장은 “전 세계 국제결혼한 한인 여성은 남편을 따라 홀로 다른 문화와 사회에 뛰어들어 편견과 역경을 딛고 오늘날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면서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자수성가했을 뿐 아니라 학자, 교육자, 기업가로 성공하거나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의 봉사에 앞장서 커뮤니티의 존경을 받기도 한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을 고국이 글로벌화로 나아가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바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박기태 단장의 특강을 들은 후 독도와 동해, 한국사,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온 실비아 패튼(54세, 한국명 윤영실)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모임인 한미여성회총



1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는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 개막식에서 'Talk to me'(다문화단체), 'ACA다문화학교', '꿈나무오케스트라'에 1만6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2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인 여성 70여 명은 9일 오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박기태 단장의 특강을 들은 후 한국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은영혜 회장, 박기태 반크 단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연합회에서도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 단장이 최근 펼치는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사를 알려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시키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패튼 씨는 “뱅크에 관련 영상 자료를 요청해 미국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DC에서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려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종이문화재단 노영혜 이사장의 특강에서도 “종이접기의 종주국이 한국”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실을 거주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이사장은 ‘우수한 우리의 종이문화, 종이접기의 세계화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우수한 종이접기 문화가 일본의 ‘오리가미’에 묻혀 세계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태권도가 가라테를 제치고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한국의 종이접기가 오리가미를 누르고 세계 곳곳에 퍼지는 데 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이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천순복 World-KIMWA 전 회장은 “우리의 종이접기와 종이문화를 알리고 세계화하는 데 우리 단체가 앞장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종이문화재단과 World-KIMWA는 특강이 끝나고 상호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대회는 9일 오후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한국을 바로 알리는 국제결혼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회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

# 뉴욕의 코리아타운은 잠들지 않는다

프랑스 언론도 감탄한 뉴욕 한인사회

- 이채영 미 변호사 · 작가 · 방송 앵커 -



프랑스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L'Express는 10월 16일자 스페셜 뉴욕 이슈란에 뉴욕의 한인 타운은 잠들지 않는다면서 한인사회를 소개했다. 사진은 이채영 씨의 북파티에 참석한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우측)과 미술랭 레스토랑 '단지'의 셰프 김훈이 씨.

**프**랑스의 타임 매거진과도 같은 유명한 시사주간지, L'Express의 10월 16일자 스페셜 뉴욕 이슈란에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L'Express는 1953년에 창간되어 프랑스, 벨기에 등 프랑스어를 쓰는 여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주간지다.

이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유럽 언론사가,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흥미롭고도 반가운 일이다.

'코리아타운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차이나타운의 불이 일찍 꺼질 때, 32번가 코리아타운 빌딩의 네온사인들은 계속 켜져 있고,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곡 '뉴욕 뉴욕'의 노래처럼 유일하게 '절대 잠들지 않는 곳' 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내용은 뉴욕의 32가에 대해서, 그리고 한인 2세들이 얼마

나 활동적이고, 또 멋지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영광스럽게도 기사는 '꿈을 이뤄드립니다'란 책을 내서 한인 차세대를 격려했던 나를 인터뷰했고, 로봇공학자 데니스홍과 레스토랑 '단지'의 셰프 김훈이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게재했다.

기사에 32번가는 뉴욕의 관광객들이 항상 방문하는 곳은 아니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림자 뒤로, 32번가와 브로드웨이, 5번가 사이에 서울의 축소판으로 뉴욕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유명해진 이유는 한인 이민 1세대의 희생 덕분에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부모님은 세탁소와 야채상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한 결과 2세들은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은행가, 회계사, 사업가 등이 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한국인들은 유명해졌고,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삼성, LG, 현대 등의 훌륭한 브랜드와,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은 K-pop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한식 또한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사가 한국, 특히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정도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이번에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참 뜻 깊고도, 기쁜 경험이었다.



## 2세의 주류사회 진출 활발

기사가 보도한대로 이민 1세대의 희생 덕분에 2세대들은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살면서 좋은 학벌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선망의 직업을 가지고도 한국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한인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소위 말하는 훌륭한 ‘스펙’들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감, 또한 뿌리를 찾고 싶은 갈망과 공허함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요새 부모들은 많이 달라졌기를 바라지만,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많은 한인 1세 부모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버려야만 ‘미국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부모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집에서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한국적인 것들을 버리고 미국사람이 되라고 강요했다. 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자라난 2세대들이 한국말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자신의 부모들과도 깊은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짧은 영어로 간단한 대화만 몇 마디 가능한 1세 한인 부모들과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2세 자녀들 간의 문화와 세대차이는 점점 깊어져갔으며, 부모와 자식이 말이 안 통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후, 어릴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도 너무나 벅찬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나의 부모님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 책과 신문을 계속 읽게 하셨다. 또한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해서 모국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

“영어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언제 한국 책과 신문까지 봐요?”

답답한 내가 물으면 “똑똑한 사람은 이중 언어와 문화를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잘 못한다”며 나는 충분히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셨다.

솔직히 당시에는 무리한 요구가 짜증스럽고 벅차다고 느낀 적이 많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현재 미국사회에서 일하며 살고



L'Express는 뉴욕의 한인타운 플라싱가를 소개하면서 이 길 위에서는 한국어만 사용되며, 모든 간판들은 한글로 쓰여 있다며 가장 흥미로운 곳이라고 소개했다.

있지만, 한 번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긴 적이 없다. 나아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떠나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해주었다.

## 모국의 위상은 한인에게 큰 '자긍심'

지난 주말에는 15회 미 동북부 한국어 글짓기 대회에 심사를 하러 갔었다.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열린 이번 글짓기 대회에는 미 동북부 지역의 여러 한글학교에서 약 7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기뻐던 점은 내가 자랄 때와는 달리 미국의 많은 한인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한국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크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어린이들과 또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교포들의 마음속에서도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지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모국의 언어를 배우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번 글짓기 대회가 참 뜻 깊은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뉴욕의 한인커뮤니티가 유명 유럽 언론에 집중 취재 대상이 될 정도로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는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다. 더 많은 한인 2세와 자라나는 3세대들이 다양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계속 열심히 배워서 뚜렷한 정체성과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장**

## 재외동포재단, 관광공사와 ‘모국방문 편의 증진’ MOU 체결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관광공사 16층 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관광공사의 관광분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침)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관광공사 16층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경제인 교류증진 및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서 협약체결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자세한 혜택 및 이용방법은 한상넷(www.hansang.net)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관광공사의 관광분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재외동포 방한 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베니키아 호텔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베니키아 브랜드 해외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단에서 시행하는 주요 초청행사 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광주광역시

## ‘2013 동포재단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발표

재외동포재단은 10월 14일 ‘2013 재외동포재단 대학·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수상작 7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은 이번 논문 공모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 주제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됐다.

우수상에는 전남대 대학원 디아스포라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김나경·이소영 씨의 ‘고려인 마을의 공간 형성과 공동체 연구’, 충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인숙 씨의 ‘중남미 한글학교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포르투갈어과 학사과정 한지영·안예원 씨의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연구: 국내 체류 조선족, 고려인 청년유학생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등 3편이 선정됐다.

텍사스대 교원양성 박사과정 김선영 씨의 ‘재미 한인 학부모들의 경험 연구: 자녀의 미국 공립교육 상황에서 직면하는 불안, 고립, 그리고 갈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의 김미희·김은혜·임민정 씨의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간 공생 플랜: 부산을 중심으로’, 동국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김재완 씨의 ‘국내 거소 신고

를 한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과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지리전공의 이은화·이화용 씨의 ‘조선족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과 송출 지역의 경관 변화에 대한 연구’ 등 4편이 장려상에 뽑혔다. 이번 공모전에 최우수상은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다.

심사를 맡은 김태기 호남대 교수, 김귀옥 한성대 교수, 김웅기 홍익대 교수, 김승일 동국대 교수는 “재외동포 관련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 분석이 세밀화된 것이 눈에 띈다”면서도 “선행 연구 검토와 함께 현실적 제안이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우리 국력의 외연”이라며 “앞으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재단 사업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우수상 15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재단은 학술회의 등을 통해 입상 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우종필 홍콩 한인체육회장, 인천체전 선수단 인솔

# “한인사회 고령화 추세 맞춰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요”

인천 전국체전에 홍콩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한 우종필(53) 홍콩 한인체육회장은 3월 취임 이후 줄곧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한인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돕기 위한 생활체육 보급에 앞장서 왔다.

그는 “은퇴자가 늘면서 갈수록 1세대들은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 여력이 되면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외롭고 쓸쓸히 지내는 이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 체육회의 가장 큰일이 전국체전 참가였다”면서 “올해부터는 낚시대회, 테니스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열고 있고, 11월에는 걷기대회를 열어 건강과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우 회장은 체육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투명한 체육회를 만들고자 사단법인화를 추진해 지난주에 법인 등록을 마쳤다. 한인 원로들의 모임인 ‘장자회(長者會)’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 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하고 있다. 체육회가 나서서 한 달에 두 번씩 원로들을 한식당으로 초대해 점심대접도 하고 있다.

홍콩의 한인 인구는 1만2천 명으로 이 가운데 체육회 회원은 1천 명에 이른다. 지상사원 등 주재원이 3분의 2에 이르는 한인 사회 구성을 고려하면 가장 많은 한인이 참여하는 게 체육회다. 올해 전국 체전에는 골프, 탁구, 축구, 볼링, 테니스, 검도 6개 종목에 6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용인대 태권도 학과를 졸업한 우 회장은 지도교수 추천으로 홍콩정부 산하 체육회 태권도 코치를 맡으면서 홍콩에 첫발을 디뎠으며 같은 해 ‘한국 태권도 청도관’ 도장을 설립해 26년째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올 6월부터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는 홍콩 태권도계의 ‘대부’로 국가대표 출신 사범들을 비롯해 군·경 간부 등 그가 길러낸 제자가 3만 명에 이른다.

우 회장은 “최근 맥도날드에 김치불고기버거가 등장하고 특급



호텔에서도 한식을 내놓는 등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이미지가 높아져 자랑스럽다”며 “태권도를 더 많이 보급해 수준 높은 동방에 의지국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권도는 상대방을 쓰러트리는 격투 무술이나 호신술로 알려졌지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 예절부터 가르칩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몸을 닦는 수신(修身)이 태권도의 본질입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의 멤버인 헤림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26년째 태권도 도장을 열어 제자를 양성하면서 항상 강조해온 것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수신(修身)”이라면서 “헤림이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커서인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외로움을 잘 견디는 거 같다”고 뿌듯해했다.

연습생 시절과 중국 내 걸그룹 활동을 거쳐 2010년 원더걸스에 합류한 헤림은 뛰어난 춤 실력과 래퍼 솜씨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한 어학실력으로 최근에는 EBS라디오에 ‘원더K팝’ DJ로도 활약하고 있다. **장**

# 박대통령 동남아서 성공적 세일즈 외교 펼쳐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2일 오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단독정상회담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끝으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월 13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까지 4개의 굵직한 다자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까지 소화했다.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한 달 만에 동남아를 다시 찾음으로써 신흥경제권으로 주목받으며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아세안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차관보급의 정치·안보 분야 협력체인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에 합의, 경제에만 국한되던 동남아와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로도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경제나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박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과의 4차례 양자회담에서 해당국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나 에너지 분야 협력과 투자 및 개발협력 확대를 당부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에서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최대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은 동남아 세일즈외교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물로 꼽힌다.

CEPA가 타결되면 인도네시아 시장이 사실상 모두 개방되는 효과가 있어 일본에 밀리던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를 체결, 인도네시아로부터 자원 수입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원화결제 확대를 통해 우리 수입업체의 환율 변동성 극복에 기여한 것도 주목된다.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까리안담 도수로, 자보타백 순환철도 개설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진행한 다수의 양자회담은 대부분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국익과 관련된 세일즈 외교를 집요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익 부분에서 상대방 정상들을 상대로 집요하고 절절히 호소하느라 회담 시간을 일찍 끝낸 적이 없다"며 "세일즈 외교 성과가 실질적 열매로 이어지려면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눈물의 고려인 역사’ 고려일보 창간 90주년 기념식

일제의 탄압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고려인의 슬픔을 달래준 재외동포 신문 고려일보의 창간 90주년 기념식이 10월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과 총리급인 투그잔노프 예탈르 카자흐 민족회의 사무국 의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대표들이 참석해 고려일보의 지난 노고를 격려하고 건승을 기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장윤석 의원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 및 우리말을 지키고자 노력한 고려일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도 예탈르 의장을 통해 “카자흐 발전에 이바지한 고려인 사회의 중심인 고려일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을 이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카자흐 고려극장 단원들이 옛소련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의 고달팠던 삶을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1923년 고국의 소식을 전하고 동포들의 삶을 알리고자 연해주에서 ‘선봉’이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댄 고려일보는 1937년 옛소련 시절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로 옮겼다.

초창기 고려일보는 당시 일본의 침략전쟁을 고발하고 애국심을 고취해 항일투쟁으로 쫓겨나고 있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스탈린은 연해주 거주 한인들을 일본의 스파이로 규정하고 1937년 조선인들을 모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문의 주요 간부들은 대부분 체포되거나 총살됐으나 일부 직원들은 출판기계와 활자판을 카자흐스탄으로 가져와 신문을 재발행했다.

소련 당국의 강압으로 1년간 폐간됐던 이 신문은 1938년 ‘레닌의 기치’라는 공산당 기관지로 복간됐으며 사회주의 이념 확산을 노린 소련 당국의 지원 속에 한때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타슈켄트, 크질오르다, 두산베, 푸룬제 등지에 지사를 두고 주 6회 발간



10월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재외 동포신문 고려일보 창간 90주년 기념식에서 김 콘스탄틴(왼쪽) 고려일보 편집장이 역대 편집장 대표로부터 창간 기념품을 전달 받고 있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된 ‘레닌의 기치’는 한글을 아는 동포마저 급감하자 1991년 신문의 명칭을 고려일보로 바꾸고 주간으로 변경하게 됐다.

한때 중앙아시아 각지에 특파원을 두고 발행 부수 4만 부를 기록하며 유력일간지로 성장한 고려일보는 지역의 재외동포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알리고자 애써왔다.

소련 공산당 집권 시절에는 공산당이 허용하는 뉴스만 게재할 수 있었지만 고려일보는 고려인이 한글 문학작품 등을 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고려일보는 1978년 카자흐의 크질 오르다에서 당시 카자흐 수도였던 알마티로 본사를 옮겼고 1991년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등지에 지사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사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재소 한인들의 시와 소설을 소개하며 연성용, 강태수, 김두철 등 많은 동포 문인을 발굴한 고려일보의 업적은 한국 문학사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다.

현재는 10여 명의 기자와 주필이 한글판과 러시아어판을 합쳐 주 1회 발행하고 있다. [▶](#)

김현태 연합뉴스 알마티 특파원



# 고산 지대에 평온한 가을이 내려앉다 강원 '태백'

평균 해발 700m의 고산도시 태백 검릉소.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곳이며 둘레는 약 20m, 사계절 지하수가 석회암반을 뚫고 솟아 폭포를 이루며 쏟아진다.



'洛東江 千三百里(낙동강 천삼백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는 태백 시내의 가장 변화한 지역  
의 작은 공원에 위치한다



### 소슬바람 지나는 검룡소 가는 길

태백은 한반도의 두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땅이다. 금대봉(1,418m) 기슭의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로 제당굴샘과 고목나무샘, 물구녕 석간수, 예터굴 등의 샘물이 땅속으로 스며다가 다시 솟는 지점이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물이 2천t이나 나온다.

검룡소 가는 길에서는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인 듯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소에 이르는 오솔길은 평탄하고 한적해 평화롭고, 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적막한 숲길 가운데 서면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아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이 가득한 소의 아래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서해에서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물길을 따라 이곳까지 올라왔다는데, 물이 바위를 지나며 새긴 물길의 모습이 검은 용이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형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 전설과 추억이 있는 상장동 이야기 마을

상장동 주민센터 인근 주택단지가 계속 그림으로 뒤덮이고 있다. 몰레방아가 있는 샘터마을에는 지난해 7월 '황부자 전설'이 벽화로 완성됐다. 태백여성수채화협회 회원 20여 명이 한 달간 재능을 기부한 것으로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에 얽힌 전설을 100m가 넘는 골목길 담벼락에 그려놓았다. 시주하러 온 스님과 쫓아내는 황부자, 몰레 시주하는 며느리, 울면서 집을 떠나는 며느리, 벌을 받아 이무기로 변하는 황부자 등 벽화를 보며 골목을 따라가면 전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골목에는 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고 벽에는 활짝 핀 무궁화 그림이 한가득하다. 무궁화와 관련된 고려시대의 이야기도 그려놓았다. 꽃 이야기길은 '프로방스'라는 그림 동호회회원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상장동 이야기마을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지역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올해부터는 전설을 주제로 하는 작은 이야기 축제도 열고 있다.

### 365세이프타운, 세계 최초의 안전 체험 테마파크

'365세이프타운(Safe Town)'은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인위적 재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가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안전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이다.

풍수해와 지진, 설해, 산불, 테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테마파크가 태백 관광의 또다른 모미가 되고 있다. 이 테마파크는 안전체험시설이 있는 장성지구, 챌린지 시설을 갖춘 중앙지구, 소방학교가 있는 철암지구로 나뉘어 있다.

장성지구의 각종 위기 상황 체험 공간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본관 1층의 '지진체험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입체안경을 끼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람객은 순식간에 가상 공간 속의 주인공이 되어 지진을 체험하게 된다. 자동차의 흔들림과 지진의 강도도 고스란히 몸에 전달돼 실제 상황처럼 느껴진다.

모든 체험관 프로그램은 프리 쇼(Pre Show)-메인 쇼(Main Show)-포스트 쇼(Post Show) 순으로 진행된다. 프리 쇼에서는 해설자가 해당 재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메인 쇼에서는 3D나 4D 입체영상을 보며 재난을 체험한다. 그리고 포스트 쇼에서는 재난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체험 효과를 알아보는 퀴즈 등이 마련된다. **[참]**



- 1 상장동은 벽화로 유명하다. 남부마을에는 태백 탄광촌의 옛 모습을 묘사한 벽화가 있고, 샘터마을에는 황지와 관련된 '황부자 전설'과 도깨비 전설이 벽화에 담겨 있다.
- 2 강원도 태백은 맑은 바람이 지나는 고산도시다. 이곳에선 어디에 발을 내디뎠다 상쾌한 기운이 폐부 깊숙이 파고든다. 이곳에 '산소(O2) 도시'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이다. 또 고산도시답게 시내를 벗어나면 어깨를 잇댄 산봉우리가 가는 곳마다 둘러싸 싱그러운 풍경을 선사한다.
- 3 태백 365세이프타운. 풍수해와 지진, 설해, 산불, 테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즐겁게 체험하며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안전 체험 테마파크다.
- 4 석탄 탄광이 많았던 태백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석탄박물관에 구호대원들의 모습이 복원돼 있다. 박물관에는 지하에서 석탄이 생성되는 과정과 석탄 채굴 방식, 광부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탄광 재해 사례, 탄광촌의 금기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 파이팅 코리아!

## 코리아넷이 전세계 한인 단체를 응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인단체가 코리아넷에 재외동포 단체 홈페이지를 무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2개 단체에 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참여대상 : 한인회, 한글학교 등 비영리 재외동포 단체, 및 유학생
- 참여방법 : 2인 이상의 재외동포 단체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해 줌
- 문의 : +82-2-3415-0193 support@okf.or.kr

코리아넷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로 한인 단체의 자랑글을 20자 이상 남기면 가장 응원글이 많은 단체 1팀에게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온라인 문화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 회원정보 수정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받으세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는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회원정보 변경 및 회원가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회원가입이나 회원 정보 변경을 하면 추첨을 통

해 온라인 문화상품권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이벤트 대상 : 코리아넷 회원정보를 변경한 회원(신규 가입 회원 포함)
- 이벤트 기간 : 10월 23일~11월 22일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월간 <재외동포의 창>에 동포사회의 생생한 현지 소식을 신고자 합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 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는 마감 기한 없이 월간 단위로 묶어서 소개를 할 예정이니 그때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 ※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aru@yna.co.kr / shaorong@ok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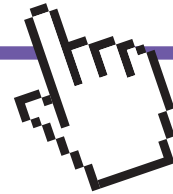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 코리아 디아스포라 희망의 새 시대로!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세계한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www.korean.net](http://www.korean.net)